



경쟁시대 대학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리는 그간 정부 주도의 대학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새로운 패러다임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함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I. 우리 '대학' 을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 일 것이다. '대학교육 구조개혁', '집중과 선택', '특성화',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우리나라에 대학이 설립된 이후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적은 없었다. 대학이라는 간판만 달고 학생만 불러들이면 만사형통이던 존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기에는 이미 흘러간 옛 영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변화의 돌풍 한가운데서 대학 운영자들은 안으로는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개혁 압박을 받고, 밖으로는 사회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고민에는 '대학' 이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바로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절박함의 자기반성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학의 위기로 이야기되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압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II. 변화 바람의 진원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정책은 고급두뇌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켰고 이러한 사회적 수요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합쳐지면서 대학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은 별 어려움 없이 양적인 고속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의 양적인 성장은 별다른 부존자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여야 했던 그 시기에 경제발전이라는 역할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급격한 양적 증가는 다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로 인한 불균형에 기댄 구태의연한 운영과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회계를 맞추는 주먹구구식 대학운영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질적 낙후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역전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변화와 발전의 핵심에는 디지털 혁명과 세계화라는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 디지털 혁명이라는 바퀴는 빛의 속도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새로운 바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며, '세계'라는 거대시장 속에서 무한 경쟁이라는 냉철한 원칙을 통해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인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세계 어디서나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담당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이자 최고봉인 고등교육은 사회·국가적 측면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과거 정원 늘리기에만 치중하며 백화점식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던 우리 대학의 비능률과 낙후된 경쟁력은 지금과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이 궁극적으로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한 국가의 지식 및 정보의 창출에 있어서의 중요한 중추

를 담당하는 대학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며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Ⅲ. 우리 대학의 현주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OECD 회원국 30개국, 산업화로 부상 중인 신흥경제국 19개국 등 세계 경제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4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28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콩, 대만, 칠레, 헝가리보다 뒤진 순위이며, 이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문 경쟁력은 32위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대학교육의 효율성,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면에서는 각각 47위와 44위로 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면하기 급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학의 연구수준을 가늠하는 세계 유명 대학 SCI 논문 수 비교(SIS社 2000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 서울대는 55위, KAIST 160위, 연세대 222위, 고려대 333위, 성균관대 336위, 포항공대가 341위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한 서울대는 2000년 2,202건으로 1위 하버드대의 8,278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신문)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국 한국의 대학은 시설과 연구기능이 열악하며, 다른 사회분야의 발전에도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데다 사회의 기대와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아직도 유효한 것을 보여준다.(1996년 OECD 교육위원회)

IV. 우리 대학의 변화와 미래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금, 우리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1. 세계 지향의 대학

무한경쟁의 시대에 그 경쟁의 대상에는 '세계'라는 존재가 담겨있다. '세계'라는 거대한 존재와의 경쟁, 그것은 곧 국내시장의 벽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폐쇄적이고 구태의연한 한국적 대학모형을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모형으로 바꾸어 교육시장의 지평을 국제사회로 넓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의 시설을 개선하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과내용, 교육방법, 대학의 학풍까지도 세계대학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지향의 대학은 더욱 절박한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 특성화 및 첨단 지향의 대학

우리나라 대학의 백화점식 형태는 대학 간의 특징과 장점을 희석시키고, 어느 한 분야도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평균수준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대학 수요자의 입장에

서도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대학으로 인해 규모의 논리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대학 간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그러나 세계대학과의 경쟁은 그동안 우리 대학의 양적성장 모형을 뛰어넘어 전문화와 특성화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양적성장에서 탈피한 전문화된 질적 성장이 강조되고 특성화된 다양한 대학의 모습을 통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고유영역과 첨단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즉, 자신의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에 임해야 하는 대학의 모습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3. 수요자중심 지향의 대학

대학의 입학지원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입학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대학은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급변하게 되었다. 즉, 과거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쟁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며, 교육기관의 질이 어떻게 보장되고 관리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 간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대학은 차별화되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

출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4. 산·학 연계 지향의 대학

과학기술은 나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에 따라 국가의 상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로 인한 지식기반사회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그 핵심 기관인 대학에 대한 산업의 기대가 커지고 산·학 간의 공조체제가 강조되게 되었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낸 기술들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기업체에 이전하고, 산업체 현장의 요구를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등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관계당국의 관심도 최근 몇 년 전부터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산학연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설 정도로 산·학 연계에 대한 지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5.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 지향의 대학

경쟁환경의 변화는 다시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수반하게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게 됨으로 인해 그 창의로운 생각과, 그 생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책무로서 투명성이 강조된다. 과거 우리 대학의 일방적인 대학 운

영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의 전환은 대학구성원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 인해 더욱 투명성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대학에서 기업 경영방식을 받아들여 기업의 투명 경영 체제가 대학 경영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대학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면 대학이 그 만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부정·비리가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고 보조금이나 재단 전입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부금 확대나 지출 구조 개선 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투명 경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자율성과 투명성은 결국 또 다른 대학의 특성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특성화는 다시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이 바로 우리 대학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6. 다양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육과 대중화된 대학교육 지향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과학의 발전은 또 다른 교육의 형태를 만들어 내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서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학교육은 캠퍼스 안의 학생과 강의실에서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대중과 넓은 장소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교육과 방송통신 교육 등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 미

디어와의 접촉을 통해 좀 더 첨단화되고 편리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V. 대학교육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하여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세계화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1. 교육주체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및 공정한 평가체제를 통한 대학 서열화의 해체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주체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 10명 가운데 9명은 국내 고등교육 현실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더불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주체 및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나름의 시행을 통해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생존의 위기를 절박하게 느끼는 지방대학에서 크게 나타날 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서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입학정원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학은 위기의식과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주의라는 고질병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대학의 서열화는 대학에서 연구와 학문에 대한 동인을 약화시켜 교수와 학생 모두가 실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기업의 명문대학 선호위주의 채용관행은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의식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여 작용한다.

물론 대학 간 경쟁을 위한 서열화는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학 간 서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대학의 교육주체 및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이 평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서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의 “대학의 서열은 연구업적과 취업률, 각종 국가고시의 합격률로 경쟁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기업에서 본 대학, 수학논문, 국제경제학술지, 특허, 교육환경, 도서관, 채용시험, 학생식당 등 여러 기준에 의한 대학서열이 발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기준에 의한 서열화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생선발에 따른 서열화보다는 오직 노력과 개혁으로만 대학의 서열이 바뀔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마련될 때, 대학경쟁력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보다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기업과 대학의 연계강화 확대

그간의 우리 대학은 교육 수요자의 의지와

는 무관한 학업을 강요하고, 교수의 일방적인 지시와 낡은 강의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흥미롭고 창의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져 미래에 자신만의 기술로 발전시키는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에서는 이렇게 배출된 인력을 다시 재교육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세계화와 대학입학 정원의 감소로 인해 학교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외국대학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대학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맞는 학사과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제개편과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 확충은 대학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 의 경우 대학과 학생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입장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고객만족, 즉 학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 대학의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가 중대한 요건이 될 것이다.

기업과 대학의 산학연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화된 시대의 무한경쟁을 가장 먼저 체

감하는 것은 기업이며, 세계화의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엄청난 비용으로 인력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들은 우수 인재 배출의 역할을 대학에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기업들이 불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잘못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주체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주체 및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나름의 시행을 통해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의 창의적 능력 위주의 채용방식 보다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선호의 채용구조는 인재양성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정작 인재 양성의 가장 큰 수혜자인 기업이 인재양성에 대한 대학투자는 인색

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재교육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와 기술을 가르치기 보다는 폭넓은 학문이 교육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대학과 기업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조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능력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채용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학에 요구하고 지원하며,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등 산학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3. 보다 적극적인 경쟁체제의 확립

대학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쟁체제의 도입은 필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교육에 대한 경쟁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 명문 대학만을 살려주는 교육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과, 보다 공적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에도 일견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더욱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교육주체의 능동적 자세와 인식이 있을 때만이 현실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체제를 실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에 따른 공정한 룰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공정한 룰이 없는 경쟁은 불공정 경쟁과 독점을 막을 길이 없고, 인센티브가 없는 경쟁은 경쟁에 대한 유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체들을 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공정한 룰과 인센티브체제를 선행하여 갖춘 후 각 대학들의 경쟁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강화된 자율과 책무의 대학운영

대학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시콜콜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대학의 경쟁이라 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어 선택권이 폭넓게 확보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하고 주어진 변화에 보다 민첩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나 무한 자율은 지나친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대학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체제를 피혜나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문학과 이공계 기피현상은 경쟁의 논리만으로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학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의 책무성이 강조된다. 대학의 책무성은 대학이 대학본연의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균형을 갖게 해주고, 경쟁우선주의로부터의 경계를 제시하여, 인문학의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제공 등의 역할이 더불어 강조된다.

5. 일관된 행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의 국제적 경쟁은 대학운영의 국제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민주화와 디지털 혁명을 통해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주체들은 보다 폭넓은 대학운영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서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 교육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현재 까지도 대학운영에 있어서 일부 재단의 횡포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대학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의 비민주적 요소를 청산하고 민주적 개정을 통해 비리사학 및 비민주적 대

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대학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개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인해 대학은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거나 전혀 유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지원은 개혁에 대한 위협을 낮춰줌으로써 대학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행·재정책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끝난다면 대학은 신뢰를 상실하고 앞으로의 개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을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은 대학에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재정을 적극 유치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방만한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구조, 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대학운영·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Ⅵ. 우리 대학의 나아갈 길

마지막으로 변화는 원칙과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때 의미가 있다.

급변하는 세계로 인해 대학의 모습과 구조가 바뀐다고 해도 대학 본연의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역할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고 그 역할의 발전을 위한 변화일 때 그 변화에 대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닌, 서두에 이야기한 근래에 강조되는 대학구조개혁이나 대학경쟁력 제고로 이미 우리 대학의 질적 체질 개선의 몸부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분명 우리 대학은 이제 좋은 싫든 분명한 경쟁체제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정부 주도의 대학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새로운 패러다임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함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시기, 세계화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지금의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의 적극적인 지혜를 모을 때이다. **대학교육**

정봉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R) 대학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편집기획실 차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편집기획실 차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어학원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반도재단 운영이사로 활동 중이다.